『人文科學』 제128집 2023년 8월
DOI http://doi.org/10.23017/inmun.2023.128..133

자유의 변증법?
- 바스카의 '다원적 변증법'의 가능성과 한계*

강경덕**

I. 서론 - 네 가지 변증법

변증법은 그것이 헤겔(G. W. F. Hegel)의 것이든 또는 마르크스(K. Marx)의 것이든 사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이론과 입장들에 주요한 이론적 근거와 영감의 토대가 되어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모순을 근본적인 사회 변화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변증법이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인식틀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변증법의 이론적 유효성에 큰 의문이 던져졌다. 특히 헤겔과 마르크스의 이론에 내재하는 거대 서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사회를 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6082816)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화시키는 매개이자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은 여전히 주요한 이론적 유효성과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이론들의 비판에 반해 다음과 같이 질문이 제기된다.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은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 변증법을 비판했던 푸코(M. Foucault)와 데리다(J. Derrida)도 모순이나 갈등의 존재를 부정했다기보다는 변증법에 내재하는 논리성과 외부 없는 전체의 이론으로 변증법을 부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푸코는 투쟁, 싸움, 적대적 메커니즘은 모순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변증법에 내재하는 '논리적 모순' 개념을 거부한 바 있다(Foucault, 1978, 14-15). 하지만 그가 권력을 축으로 형성되는 주체들의 갈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데리다도 종말론(eschatology)과 목적론(teleology)을 구분하며 알튀세르(L. Althusser)의 구조인과성 개념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벤야민(W. Benjamin)[1]의 폭력(Gewalt)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의 정의 이론은 사회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갈등을 부정하지 않는다(Derrida, 2002). 구조인과성(structural causality)을 매개로 알튀세르와 데리다 사이에 형성되는 쟁점은 목적론 대 종말론의 쟁점이었지 모순과 갈등 그 자체는 아니었다(Derrida, 1994, 112).

이러한 점들은 변증법을 목적론과 분리시키며 재구축해야 할 이론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변증법을 논리적 모순 개념에서 분리시키며 비선형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선 위에서 변증법의 개조 작업을 수행한 이론가가 바로 영국의 과학철학자 로이 바스카(R. Bhaskar)이다. 바스카는 알튀세르와 유사한 입장에서 헤겔 변증법의 일원론적이고 목적론적인 변증법을 비판하지만 알튀세르와는 달리 '부정의 부정' 개념은 보유한 채 변증법을 재구성하려 한다. 그는 또한 구조의 이중성 개념을 가공하며 '구조주의'에 내재하는 구조적 편향성(구조결정론)을 수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주체들의 실

1) 벤야민과 아도르노는 탈 주체적/탈 목적론적 관점에서 변증법을 가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노르노(T. Adorno)와 데리다 사이에 탈 주체를 바탕으로 변증법이라는 쟁점이 형성된다.

천의 유효성을 되살리며 비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그의 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스카의 이러한 시도는 포스트-이론에 맞서며 현대적 이론으로서 변증법을 가공하기 위한 이론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부정성을 일반화한다든가 정교한 논증 없이 변증법을 자연에 적용하며 변증법을 보편화하려는 그의 시도에는 이론적 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스카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며 비목적론적 변증법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조건을 살펴보고 그의 이론을 생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바스카의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재화(absenting absence)로서 부정(negativity)' (부재화로서 변증법)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바스카의 부재화로서 변증법은 그의 과학적 현실주의(realism)[2]와 잘 조응하는 인과적 변증법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비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변증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시하지만 또 다른 변증법의 핵심 개념인 모순과 적대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조금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변증법의 재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정성 개념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가 『변증법: 자유의 맥박』(Bhaskar, 1993)에서 제시하는 4개의 변증법 개념을 살펴보며 각 개념에 내재하는 특성과 비목적론적 경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간 국내에서 바스카의 과학적 현실주의에 대한 소개와 논의(이기홍 (1995), 강경덕 (2020))는 많이 있었으나 그의 변증법에 대한 논의(고창택 (2008), 서민규 (2010))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가 제시하는 변증법의 네 측면에 대한 소개는 부재화로서 변증법을 논의하기 위한 선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층화의 변증법과 총체성의 변증법 부분에서는 바스카가 어떻게 자신의 과학적 현실주의를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부정성 문제는 주로 변화의 변증법과 실천의 변증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2) 일반적으로 realism은 실재론으로 번역되지만, 'real'이 '실재'보다는 '현실적'인 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곳에서는 realism을 현실주의로 번역하고자 한다.

다.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바스카 자신이 “과학 철학의 영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뛰어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칭하고 자신의 저작에 큰 영향을 끼친 이론가로 인정한 바 있는 알튀세르(Elliott, 1987, 330에서 재인용)와 바스카의 비교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알튀세르의 과잉결정·구조인과성 개념과 바스카의 과학철학을 비교할 것이다. 이는 바스카의 이론뿐만 아니라 『『자본』을 읽자』와 같은 초기 알튀세르 저작의 문제설정과 관련 논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층화의 변증법

바스카는 변증법을 층화(stratification)의 변증법, 변화의 변증법, 총체성(totality)의 변증법, 다원적 (실천의) 변증법의 네 층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중 층화의 변증법은 다른 변증법적 요소들의 토대이자 그의 (과학적) 현실주의(realism) 테제를 바탕으로 한다. 바스카에 의하면, 현실은 근본적으로 무한한 층위의 현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양하다. 즉 “현실성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총체성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Bhaskar, 1993, 15).” 바스카는 또한 과학이론을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담론적 구성물로 파악한다. 이는 지식과 지식의 대상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이 발전하더라도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과 이론 고유의 물질성으로 인해 지식과 지식대상 사이에는 환원할 수 없는 근본적 차이가 발생한다. 층화의 변증법은 이렇게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현실의 근본적 다양성과 다층성을 지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바스카가 가정하는 현실의 무한성과 다양성이 명목론에 머무르거나 현실의 임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의 이론에서) 현실은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것, 인과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가정된다. 즉 현실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층위(stratified)의 현실로 구성되고, 인간 주체와 독립적으로 자동적이며(intransitive) 인과적 역량을 지녔다는 점에서 초사실적(transfactual)이다. 바스카는 이러한 입장을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transcendental idealism)에 대응하는 초월적 현실주의(transcendental realism)라고 명명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층화의 변증법은 근본적인 현실의 다양성과 환원불가능성을 바탕으로 비일치의 관점에서 현실과 이론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것, 과학적 객관성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것을 이론적 대상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가?(Bhaskar, 2008. 23)'라고 물으며 과학의 객관성에 접근한다. 이는 바스카가 유물론적인 현실의 객관성 테제를 바탕으로 과학의 물질적 토대에 대하여 논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론을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함의한다. 방금 논의했듯이 바스카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들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담론적 구성으로서 현실(the real)이라는 이론적 요소를 그의 현실주의(realism)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분리된 채 직접적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담론의 물질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의 객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된다. 그러나 바스카의 입장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물리적인 것'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들뢰즈(G. Deleuze)와 같은 이론적 입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바스카는 유물론적인 현실의 객관성 테제를 바탕으로 현실과 이론을 구분하되 이론을 (자체의 현실성을 지닌) 객관적 생산물로 파악한다. 이 같은 입장에 따르면 이론은 현실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의 원리로 구성되는 한 (자체의 물질성을 지닌 채로) 현실과 일정 부분 조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스카의 입장을 '조응' 개념을 전도시키는 알튀세르/마슈레(P. Macherey)의 입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알튀세르는 지식대상과 현실대상을 구분하고 지식의 객관성을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이론 내적 기준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다시

말해, 알튀세르는 "전적으로 사유 속에서 전개되는 지식과정이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유 바깥의 실재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 세상에 대한 인식의 전유를 생산할 수 있는가?(Althusser and Balibar 1997, 56)"라고 물은 후, 내적 정합성에 따른 객관성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한다. 이는 이론이 객관적인 것은 그것이 현실을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론의 내적 구성의 정합성을 매개로 현실과 간접적으로 조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마슈레는『에티카』2부(스피노자, 1977, 73)의 명제 7번("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와 연결과 같다.")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적합한 관념과 그 대상 사이에는 분명 상응 관계가 존재하지만, 이 두 항 사이에 존재하는 통상적인 관계는 전도된다. 곧 참된 관념은 자신의 대상이 상응하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참된 관념이 적합하기 때문에, 곧 필연적인 방식으로 자체 내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대상에 상응한다(마슈레, 1979, 111).

이는 현실대상과 지식대상의 조응이 이론의 생산 이전에 하나의 전제로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튀세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론가는 아니지만 데빗(Devitt)은 (알튀세르의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입장에서)[3] 이 이중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x 유형의 문장들은 1) 그들의 객관적 구조, 2) 문장들의 부분과 현실 사이의 객관적 관계 또는 지식적 관계, 그리고 3) 이 현실의 객관적 특징을 바탕으로 옳거나 그릇된다고 말한다(Devitt, 1984, 27-28).

이는 이론의 객관성이 현실에 대한 이론의 직접적인 반영에 의해 구성되

3) 데빗이 직접 알튀세르를 방어하거나 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현실주의/실재론의 관점에서 생산으로서 지식이라는 관점과 일정한 쟁점을 형성하고 관련 논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것이 아니라 '이론 내적인 정합성이 구성하는 이론적 현실(체계)'과 '현실이 존재하는 방식'의 사이, 양자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보인다. 이론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스카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론 구성을 위해 상상된 가설적 실체(entities) 및 발생기제가 다른 원천으로부터 그 부분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명확하듯이, (가능한 설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론들은 가설적 실체와 발생기제에 대한 조응(correspondence)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Bhaskar, 2008, 170).

이는 개념들 사이에 형성되는 이론 내적인 관계와 개념과 그 개념이 지칭하는 현실 사이의 이중적 관계가 이론의 객관성을 규정하는 근본적 조건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개념은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닌 한에서 이론 내적인 정합성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들의 내적 체계가 객관성 구성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합성은 객관성 구성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며 현실과의 대조를 통해 검증되는, 즉 실험 등에 의해 검증되는, 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이론이 생산하는 객관성의 또 다른 조건이 된다[4] 데빗이 지적하듯이 "이론이 S라고 진술할 때, [이론이 진술하는] 세계가 마치 S와 같다면 그 이론은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Devitt, 1982, 107). 이러한 지식관은 지식을 사물 속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정한 인간 활동의 산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대상과 현실대상의 조응을 기계론적

4) 콜리어는 '지식기준의 내재성'은 이론의 유효성이 오로지 순수한 사유 속에서 검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실용적인 과학의 적용과는 독립적인 증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Collier, 1989, 10)고 말한다. 자연과학의 경우, 초끈 이론은 에딩턴의 실험 이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러하였듯이 이론적 정합성은 수립되었으나 실험적 검증을 통한 현실 설명력을 입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개념과 현실 대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에 조응하는 여러 가지 객관성을 구성하는 경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초끈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미시물리학과 거시물리학을 종합하려는 시도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Smolin(2005; 2007)을 참조.

이고 경험론적인 반영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으로서 지식'이나 '거울 없는 반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5] 이는 알튀세르의 제자인 마슈레와 르쿠르(D. Lecourt), 발리바르(É. Balibar)가 체계화한 개념(Lecourt (1973) Balibar/Macherey (1974))으로 바스카가 이 논점을 직접 '지식의 생산'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관은 바스카가 '지식을 그 자신의 물질적 원인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지식이 지식에 의해 생산되는 것(Bhaskar, 2008, 185)'으로 간주하는 한에서 바스카의 지식 이론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6]

우리는 여기서 조응이론, 현실주의, 구성주의를 둘러싼 객관성 논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 문제와 변증법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관이 변증법과 관계되는 이유는 이론의 대상, 과학의 대상이 현실 '그 자체를 포괄하지 않고' 따라서 이 두 요소(현실과 이론)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재구성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과학의 대상들은 현실에 대한 한 가지 관점'(Bhaskar, 1993, 15)일 뿐이며, 그로 인해 현실과 지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달리 말해, 설명되는 것은 결코 '순수한' 현상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독해되는 현상인 것이다(Bhaskar, 2008, 190). 이 같은 틀 안에서 인식론적 절단이나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은 이론틀의 변화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론 체계의 내적 모순이나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이론 체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뉴턴 체계에서 아인슈타인 체계로의 인식론적 변화는 뉴턴 체계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

5) 바스카는 '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가(how the world must look like for science to be possible, how the true looks like)'라고 물으며 역으로 논의를 전개한다(Bhaskar, 2008, 29). 이는 '이론 내적인 정합성'과 '현실 설명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객관적 세계가 구성'되는 방식이라는 논점을 제기한다.

6) 바스카의 입장은 실험의 과학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기저에서 작동하는 객관적 발생기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가 중력의 기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과 현실은 같은 것은 아니며, 우리는 경험주의적 사실의 이데올로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과정이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체계는 그 안에 고전역학과 소립자 물리학(양자역학)의 간극이라는 내재적 모순/한계를 지니고 이 이론 체계 자체의 변화를 추동한다.

하지만 바스카의 입장은 현실과 이론의 궁극적인 일치라는 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헤겔의 변증법과 근본적으로 단절한다. 헤겔이 현실대상과 지식대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요소의 일치를 역사적 과정의 끝에 배치하였다면, 즉 전통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던 것을 끝으로 이동시켰다면, 바스카의 체계는 이 두 요소의 궁극적인 일치를 부정한다.[7] 다시 말해, (앞서 논의한) 이론적 생산활동의 효과로서 일치라는 관점은 객관성의 문제를 (현실과 지식의 근본적 차이를 보존한) 비일치의 객관성이라는 관점으로 전위시킨다. 즉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것이지만 이론은 내재적 원리를 지닌 생산 활동의 효과로 현실을 구성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현실대상과 지식대상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유지되고 지식 체계는 지속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열린 체계(객관성의 열린 체계)가 된다.[8]

III. 발생기제의 복합체

층화의 변증법은 과학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현실을 분절되는 다양한 현실 층의 복합적인 체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의 일치나 최종 지식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적론을 해체할 때 중요한 이론적 계기로 작용한다. 바스카는 이러한 층화적 현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생기제(generative mechanism) 개념을 사용한다. 발생기제는 현상의 기저에서 '사물들이 행동[작

7) 헤겔에게 초월적인 것은 과정을 통해서 구현된다.

8) 드 보어가 헤겔의 철학과 데리다의 형이상학 비판의 유사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적했듯이, 헤겔은 주체와 객체의 단절, 현실대상과 지식대상 사이에 축소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를 도입한 이론가이다(De Boder, 2011, 595-596). 물론 데리다는 헤겔이 존재론을 절대적 논리로 규정하며 종합없는 부정성을 사고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데리다 1981, 53).

동]하는 방식(a way of acting of a thing)'을 의미하며(Bhaskar, 2008, 51), 물리학의 발생기제, 화학의 발생기제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수의 발생기제가 존재한다((이 기제들은 경험적 영역이나 현상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상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9]). 이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콜리어가 지적하듯이,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경제적 영역에 내재하는 발생기제라고 할 수 있다(Collier, 1989, 66-70). 구조 또는 총체적 구조는 이러한 발생기제들의 (열린) 복합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스카에 의하면) 발생기제들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현실을 형성한다. 물리학적인 것은 화학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발생기제와 화학적인 발생기제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한다. 공장을 지을 때, 경제적인 발생기제와 물리적인 발생기제는 서로 수평적이고 병렬적인 관계로 공장 건축의 조건을 규정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떤 요소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더 아래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ollier. 1989, 48-51). 수직적 관계에 아래에 있는 요인은 그 위에 있는 요인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고, 포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위의 요소가 아래의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거나 아래 요소가 위의 요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복잡한 것이 덜 복잡한 것이나 더 근본적인 것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더 복잡한 것이 덜 복잡한 수준에의 고유한 개념들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한 복잡한 것은 그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치환될 수 없다(콜리어, 1944, 166). 예를 들어, 용기에 든 어떤 물질이 썩는 것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이지만 불순물이 들어가 이를 썩게 했다면, 이 불순물의 유입 과정이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순물과 같은 외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나 상부의 요소가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바스카의 발

9) 이는 현상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과적 조건이자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Bhaskar, 2008, 51).

생기제 구성체에서 보편성과 결정성은 분리된다(강경덕, 2020, 153-156). 보편성(발생기제가 지칭하는 보편적 제약)이 물리 및 사회 현상을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조건이자 제약으로서 항상적 메커니즘을 지칭한다면 결정성은 이 현상이 규정하는 경로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함의한다(강경덕, 2014, 241, 236). 이때, 결정성은 우연한 요소들의 개입을 배제하지 않고 궁극의 원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발생기제들의 관계는 목적론을 해체할 때 중요한 이론적 계기로 작용하는데, 그 함의는 바스카의 현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바스카는 마르크스의 철학과 과학에서 이론적 영감을 받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의 마르크스 이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과 단절한다. 바스카에 의하면, 생산양식이 규정하고 설명하는 경제의 인과성은 (하나의 발생기제로) 사회 및 역사의 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약이자 규정적 인과 요소이지만 수직적 관계의 기저에 위치하면서 역사적 동역학을 구성하는 유일한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론적 경향은 바스카의 목적론 비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스카의 이론에 내재하는 발생기제의 복합체로서 구조 개념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현실(발생기제)의 다층성·다원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 경제결정론과 같은 일원론과 단절하고, 현실을 열린 구조의 총체를 구체화하는 이론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알튀세르와의 이론적 관계에 적용해 보자면 바스카의 시도는 알튀세르가 『『자본』을 읽자』에서 제시한 '지배적인 심급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최종심급 개념'을 해체(Althusser and Balibar, 1997, 217-224)하고 과잉결정을 보편적 요소(발생기제)들의 공동결정(Bhaskar. 1993, 127-8, 240)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도는 「모순과 과잉결정」에서 강조한 다원적 모순들의 비선형적이고 복합적 결정으로서 과잉결정 개념(Althusser, 1970, 101)을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의 인과성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이론적 수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콜리어가 지적하듯이 알튀세르가 최종심급 개념과

복합적 요인의 과잉결정 사이에서 이론적으로 동요했다면, 바스카의 발생기제 개념은 과잉결정을 보편적 요소들의 복합적이고 동시적인 결정(multipe determination)으로 이론화(Collier, 1989, 61)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10] 조금 더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의 **체계화**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총체성의 변증법

바스카가 제시하는 변증법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총체성의 변증법이다. 이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 하고,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Bhaskar 1993, 12). 이러한 총체성 개념은 물론 헤겔에게서 유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헤겔의 변증법은 전체의 우위 속에서 부분을 파악하고 이미 주어진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본질론적이며 목적론적이다. 헤겔에게 "본질은 나타나고야 마는 것"(헤겔, 1929, 360)이며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반조(返照)요 자기 매개다(헤겔, 1929, 349)." 따라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본질의 자기 통일이라는 것은 매개의 총체이기 때문에 구별, 따라서 매개의 지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직접태 또는 존재의 부활이다. 그러나 여기서 부활된 존재라는 것은 매개의 지양에 의하여 매개된 것 즉 실재다(헤겔, 1929,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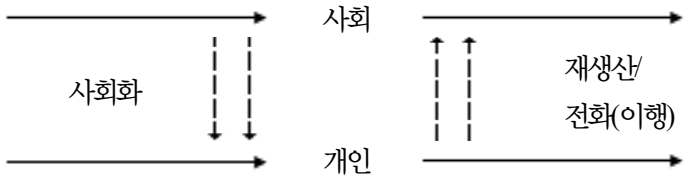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부분은 본질의 한 부분이거나 전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바스카는 헤겔의 변증법이 일종의 자동발생(auto-genesis)적 기제(Bhaskar, 1993, 309, 240)이자 논리적 전개를 축으로

10) 콜리어는 알튀세르의 과잉결정이 실은 바스카적인 의미의 다층/다원 결정에 가깝다고 지적한다(Collier, 1989, 62).

발전한다고 지적하며 그의 변증법에 내재하는 완결성과 폐쇄성을 비판한다.

> 헤겔적 총체성은 ... 닫혀 있고 완결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총체성처럼 성취된 동일성의 이론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것과는 다르게 그 안에 내재하는 순간들로서 총체성에 이르는 단계들의 계열을 포함한다(Bhaskar, 1993, 24).

하지만 바스카가 이처럼 헤겔 변증법의 목적론적 성격을 지적하더라도 변증법의 이론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변증법이 그 자체로 목적론적인 것이 아니기에 이론적으로 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발현(emergence) 개념을 활용해 변증법적 총체성 개념을 재구성한다. 발현관계란 어떤 한 항이 다른 항으로부터 통시적으로 또는 공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최초의 항에 반작용할 수 있고, 그런 한에서 앞 선 항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Bhaskar, 1993, 49, 397)를 지칭한다. 발현관계는 전체-부분, 구조-정세(stricture-conjuncture)의 동시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바스카에 의하면, 개체나 부분이 먼저 존재하고 전체가 존재하거나, 전체가 먼저 존재하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이 서로를 전제하고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체와 부분(구조와 개체(개인))은 존재론적으로 동시적이다. 다시 말해, 사회가 먼저 존재한 후, 그 효과로 개인이 존재하고 다시 그를 바탕으로 사회가 존재(사물화의 오류)하거나,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사회나 구조가 존재하는 것(원자원론적 개인주의 또는 의지주의의 오류)이 아니라(Bhaskar, 1998, 34-35)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와 개인, 전체와 부분은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서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바스카는 이 관계를 구조와 행위성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 and agency)이라고 부른다(Bhaskar, 1993, 155).



전체와 부분의 존재론적 동시성은 구조가 내정된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정세의 효과 속에서 지속적으로 분기한다(bifurcate)는 것을 의미한다(Bhaskar, 1993, 155). 정세(부분)는 구조의 효과이지만 현 정세는 구조의 현재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구조와 이중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정세는 구조의 조건이자 효과로서 지속적으로 전체를 초기화하고, 그런 한에서 구조는 정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분기한다. 따라서 마치 카오스 수학이 엄격한 인과적 틀을 수용하면서도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관점에서 미세한 분기를 사고하는 것처럼(Glick, 2013, 355, 434-5[11]/Ruelle, 1993, 39-44) 구조의 이중성 개념은 구조 전체의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세가 만들어내는 편의(deviation)의 관점에서 부분이나 정세의 유효성(정세는 지속적으로 구조를 초기화한다)을 수용한다. "구조는 부분들의 상호 작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Balibar, 1996, 115)"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알튀세르는 구조(또는 전체)를 '부재하는 원인(absent cause)'이라고 부른 바 있다(Althusser and Balibar, 1997, 189). 다시 말해, 매 순간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의해 구성되는 한에서 구조는 근본적으로 역동적이고 불안정하며 매순간 분기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또한 재생산과 과정과 질적인 이행의 과정, 전화(transformation)의 과정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의한다.

구조/행위의 이중성이 함의하는 '분기'의 가능성은 구조 전체의 운동 방향을 열린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변증법의 방향을 열린 것으로 재구성한다. 즉 발생기제의 다층적 총체, 구조/행위성의 이중성 등은 헤겔 변증법의 선형성을 극복하고 과학적 인과성의 틀 안에서 변증법을 비선형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데 일정한 이론적 역할을 수행한다. 알튀세르와의 이론적 관계 속에서 정리하자면 이러한 바스카의 작업은 과잉결정의 철학적 토대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기초 다지기 작업(underlaboring)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Bhaskar 2008, 10).

---

11) 글릭은 결정론의 '계'이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으로 카오스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스카의 이론이 지닌 가능성과 강점을 주로 살펴보았다. 바스카의 이론은 포스트 이론들의 헤겔 비판에 맞서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을 방어하고, 구조주의에 내재하는 구조적 결정론을 수정할 수 있는 이론적 수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벗어난 다층적 현실의 열린 변증법을 가공하면서 변증법의 목적론적 성격을 중화시키는 것도 큰 이론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획이 지닌 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천과 부정성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세가 구조의 분기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정세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실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결국 실천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층화의 변증법과 총체성 개념은 자연스럽게 주체의 문제를 도입하며 실천의 변증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스카 자신은 실천/변화의 변증법을 자신의 변증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변증법을 자유의 변증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바스카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그가 자유의 변증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부재화' 개념은 여러 가지 난점을 유발한다. '부재화의 변증법'은 인과적 변화를 부정성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그의 과학적 현실주의와 이론적으로 잘 어울리지만, 모순과 적대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의 특징을 중화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기키도 한다.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V. 제약의 제거: 주체의 변증법?

바스카가 제시하는 4개의 변증법 개념 중에서 변증법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변화의 변증법이다. 바스카 자신도 지적하듯이 이는 좁은 의미의 변증법이며 부정, 부정성, 되기, 매개, 상호성 개념들과 관계한다 (Bhaskar, 1993, 11). 하지만 변증법이 상호전화, 역전, 이행 등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변화의 이론(Bhaskar, 1993, 12)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부정성과 함께 변증법의 여러 측면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Bhaskar, 1993, 243). 여기서는 특히 변증법의 마지막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praxis)의 변증법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가 바로 행위자들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바스카가 제시한 변증법의 나머지 두 측면인 변화의 변증법과 실천의 변증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바스카는 '해악 및 제약의 제거'라는 개념을 매개로 변화의 변증법과 실천의 변증법을 연결한다. 이 개념은 행위자들이나 주체들이 제약이나 해악을 식별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실천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 행위로 인한 구조의 전화를 동시에 함의한다. 바스카는 이를 '부재의 부재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때, 부재(absence)란 부족이나 제약, 해악을 의미하고, 제약의 제거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행위,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약/해악의 제거는 부재의 부재화(absenting absence)가 된다(Bhaskar, 1993, 42).[12] 바스카는 궁극적으로 제약의 제거로서 변증법, 부재의 부재화로서 변증법을 자유의 논리와 연결시킨다.

> 변증법은 부재의 부재화에 대한 제약(해악, 제약, 비진리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변증법의 임무는 (스탈린주의적) 지휘의 입장이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엘리트주의적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요소적 부재들(부족, 요구, 필요나 욕망)의 논리로부터 보편적으로 흘러나오는 내적 욕구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권력2 관계[13]가

12) 바스카는 이를 문제·부재의 부재화에 대한 제약의 부재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Bhaskar, 1993, 177).

13) 이는 착취, 지배, 종속, 통제의 구조를 매개로 다른 이의 실질적 이해나 소망에 반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함의한다. 즉 일반화된 주인-노예 유형의 관계로 제약을 유발하는 물질적 재화, 정치적·정치적 군사적 권위, 문화적 지위와 분배를 규정하는 사회적 관계를 함의한다(Craven, 2007, 32). 반면에 권력1은 행위성 개념에 내재적인 전화적 능력을 의미한다(Bhaskr 1993, 402).

> 지배적인 곳에서 나타난다. 이는 번영과 자율로서 실정적으로(positively)[14] 일반화된 자유의 개념이다. 이는 억압될 수 없다(Bhaskar, 1993, 297-299).

바스카에 의하면, 제약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자율과 자유를 향한 과정이며, 그런 이유로 변증법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자 자유에 대한 제약에 대한 전화적 부정(Bhaskar, 1993, 378)"이며 "변화의 논리"이자 "자유의 논리"(Bhaskar, 1993, 41-42)이다. (자기규정(자기원인)으로서 자유 개념(칸트)과 달리)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인식과 전화를 근본적인 자유의 조건으로 파악하는 이 같은 '**자유화**(liberation)로서 자유' 개념은 크게 볼 때, 스피노자[15]로부터 유래해서 헤겔로 이어지고 다시 바스카로 이어지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천의 변증법은 제약의 제거·부재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천의 조건 및 제약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와 근본적 가정을 공유하지만, 구조적 부재화의 핵심으로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의 일반적인 약점을 보완한다. 구조주의 이론은 주체와 행위성을 구조의 내재적 경향성의 효과로 축소시키며 정세 속에서 주체들의 실천이 생산하는 정치적 효과를 상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바스카의 변증법은 실천을 '삶의 조건에 대해 전화적 힘을 가할 수 있는 인간 행위자의 능력'을 구조화하는 힘들(Craven, 2007, 32)로 규정하며 구조주의의 결정론적 성격을 중화시키고 실천의 가능성을 복원한다. 바스카에 따르면 실천의 변증법은 곧 인간 실천의 변증법이며, 인간의 의도적인 실천과 행동에 의해 사회가 매개되는 한, 사회 구조는 "필연적으로 시공간의 불변체가 될 수 없고(Bhaskar, 2000, 39)" 그 진행 방향 또한 열려 있다(Bhaskar, 1993, 12). 위 인용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그가 제시하는 자유의 변증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열린 총체성의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주체 개념

14) 'Positive'는 보통 '실증적',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 글에서는 실증과 긍정을 모두 표현하는 단어로 '실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고자 한다.

15) 바스카는 "인간은 부족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Bhaskr, 1993, 246).

을 복귀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식이 다시 주체를 되살리며 목적론을 부활시키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체의 역량을 과도하게 재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바스카의 시도는 비목적론적 변증법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알튀세르와 유사하지만 주체들의 실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알튀세르는 주체 개념을 이데올로기 작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을 가공하려고 했다(Althusser, 1972, 200-201). 알튀세르의 주체 개념이 (생산양식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물질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 주체의 실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면, 바스카는 (자유의 논리로서 변증법 개념이 예시하듯이) 주체의 실천 가능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하지만 바스카가 주체의 실천을 구조가 닫히지 않는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체의 전능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약을 느끼는 이들은 제약을 식별하고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시도가 구조의 진행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조가 작용하는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구조의 방향을 굴절시킨다(Bhaskar, 1993, 71-72)는 점을 상기시킨다. 바스카는 구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절대적인 행위자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자들이든 그들의 입장에서 해악이나 제약,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구조의 움직임을 이전의 경로로부터 이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비보존적 변증법). 여기서 과거에 주체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비판받았다면, 점차로 그 이론적·실천적 유효성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기로 하자. 진리가 전적으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바디우(Badiou, 1997, 33)나[16] 헤겔의 변증법이 애초에 목적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형성을 내포하는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지젝(Žižek, 2012, 403-404)[17]의 예에서 잘 드러나듯이 과거에 비해 많은 이들이 주체를 구조적 변화를

16) 바디우는 알튀세르의 과학/이데올로기 구분에 영감을 받았지만 그의 이론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찾는다(Badiou, 1998, 74-75).

일으키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유효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층화적 현실의 근본적 다양성과 환원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바스카의 입장이 이들의 입장과 같지는 않지만 분명 주체적 실천의 유효성을 사고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행위자들의 실천이 구조에 행하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들의 실천이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목적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의 이중성을 바탕으로 실천의 변증법과 열린 총체성을 접합하려는 바스카의 시도는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을 구성하는 데 나름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바스카의 실천의 변증법이 과도하게 실천의 유효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이외에도 혹시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 주체를 특권화하면서 헤겔적인 목적론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자유의 변증법은 실질적으로 인간과 인간 이외의 행위자들의 경계를 지우려는 부정성 개념의 의도를 벗어나 행위성 개념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만일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자가 인간뿐이라면 무의 존재론과 자유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의 변증법은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인간실천의 변증법이 될 위험성을 지닌다.[18] 따라서 바스카의 이론에서 인간 이외의 어떤 행위자들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은 그의 주장의 유효성을 입증할 때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바스카의 실천의 변증법이 원론적으로 인간을 넘어선 행위자들의 변증법을 암시하더라도 그의 논증이 이를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에도 변증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인간 실천의 변증법이 유일한 변화의 형태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연에 (악의 제거라는 형태로)

17) 지젝은 바디우와 매우 유사하게 주체성과 보편성은 서로 엄격하게 상관적이라고 주장한다. (Žižek, 1997, 222)

18) 그러나 자유를 가치 개념이 아닌 (제약의 제거를 지칭하는, 즉 자유화로서 자유를 지칭하는) 묘사적 개념으로 볼 때, 인간 이외의 행위자도 자유화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도 어떤 기획이나 비자연적 질적 변화의 관점에서 자유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어떤 형태의 질적 변화의 변증법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나아가 바스카는 부재화를 인과성 개념(causation as absenting)으로 재규정하며 자연과 사회 영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정성 개념을 가공하며 이 문제에 답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의 이론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비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변증법의 고유성을 강화하려는 바스카의 시도가 역설적으로 변증법의 이론적 고유성과 장점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인과적 부재화 개념이 약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바스카의 핵심 개념인 부재화 개념을 중심으로 변증법의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VI. 부재화의 변증법 – 부재와 부재화

바스카에게 부재의 부재화는 일반적인 변증법의 작동 방식이다. 이때 부재(absence)는 제약을 의미하고, 부재화(absenting)는 제약의 제거를 함의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제약(constraints)의 제거 또는 해악(ills)의 제거는 이미 욕구 충족을 이루는 데 대한 방해 또한 실현 조건의 부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부재의 부재화로 구조 변화의 동력이 되고, 이는 다시 자유화로서 변증법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인간의 실천은 이 자유화의 변증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캘리니코스(A. Callinicos)나 크리븐(S. Creaven)이 지적하듯이 바스카가 제시하는 자유의 맥박으로서 변증법은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해방을 위한 원초적인 외침을 바탕으로 하는 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헤겔)을 일반화하면서 인간학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 어디든 제약이나 권력이 있는 곳이면, 그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결여, 필요, 요구, 욕망과 같은 요소적 욕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욕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행동하는 것은 부재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해방을 전제한다(Bhaskar, 1993, 37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논의가 그 자체로 목적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논의가 그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장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스카는 변증법이 사회에만 적용될 이유는 없으며(Bhaskar, 1993, 67) 변증법에는 인간학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Bhaskar, 1993, 304). 이는 당연히 자연에도 변증법이 작동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하지만 크리븐이 지적하듯이(Creaven, 2007, 62) 바스카의 논의는 인간 영역의 바깥에서 제약의 **제거**라는 관점이 여전히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다. 또한 바스카는 구조가 행위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며(Bhaskar, 1993, 158), 주체 없는 구조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논의에서 주체 없는 변증법과 주체에 의한 변증법이 어떻게 접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그가 주장하는 자유의 변증법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제약의 제거가 자유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이를 수행할 행위자를 인간 이외의 영역에서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바스카가 자유를 주어진 권리가 아닌 자유화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때, 인간 이외의 영역에서도 '제약의 제거'의 행위 양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스카는 이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지 않는다.[19]

바스카가 이 논의를 강화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비목적론적인 실천의 변

19) 오윤구(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과나무 연구원)는 발리바르의 자유-평등 명제가 인간 주체를 선험적으로 전제하지 않는 탈주체적·탈개체주의적 입장에서 제약의 제거를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논점을 제기한다. 이는 발리바르와 바스카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흥미로운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실천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이 둘의 입장이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리바르가 자유와 평등과 같은 표상에 의해 매개되는 갈등성을 바탕으로 정치의 자율성을 사유한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윤구는 발리바르의 접근법이 주체를 효과로 간주하지만 일원론으로 경도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계급 모순뿐만 아니라 라캉적 상징계에 내재하는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다원적 변증법을 구성할 수 있다(Kang, (2018))는 측면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증법의 구상하는 데 매우 강력한 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형태와는 다른 악/제약의 제거 형태가 제시된다면, 그것은 인간 실천의 변증법을 제약 문제의 제거의 한 형태 속에 포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스카와 달리 반드시 의도적이고 집합적이지 않은 개체들이나 복합체들의 반응을 제약의 제거라는 틀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의식적이거나 집합적이지 않더라도 인간 행위에 대한 다른 존재들의 반작용, 동물들의 코나투스적 반작용은 제약에 대한 반작용, 제약의 부재화(the absenting of constraints)로 볼 수는 없을까?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일방적인 효과의 관점에서만 구조와 관계하는가? 인간이 구조적 제약으로 인식하는 행위는, 사실 다른 존재들의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피노나적 코나투스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바스카가 암시하는 행위성에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포함하는 비인간적 존재들의 작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가능하다면 스피노자의 문제틀은 바스카가 공백으로 남겨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열린 채로 남겨 두고 바스카가 제시하는 부재화 개념의 다른 측면을 조명해 보자.

이제 우리는 부재화 개념의 다른 측면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부재화로서 인과성(causation as absenting)'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바스카는 모순 개념을 변증법 개념과 분리시키고 부정성을 인과적 부재화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변증법을 구상한다. 보통 변증법은 모순의 이론으로 간주되지만, 바스카는 모든 변증법이 모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순은 불일치, 긴장, 갈등을 함의하는 하나의 은유(Bhaskar, 1993, 67, 56)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모순의 변증법은 부정성의 한 사례일 뿐 변증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함의한다. 그는 또한 모든 변증법적 모순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며 논리적 모순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Bhaskar, 1993, 61). 그는 이렇게 모순과 부정성을 구분하며 모순의 이론이 아닌 부정성의 이론으로 변증법을 재규정하고 이 부정성

을 부재화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부재화란 해악이나 제약의 제거라는 의미에서 '부재의 부재' 또는 '부재의 부재를 위한 실천'을 함의한다. 하지만 바스카에게 부재화는 어떤 주체에 의한 제약의 제거라는 관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이 개념을 부재화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인과적 변화로 규정하는데, 이는 "부정에 의해 존재가 재구성되는 작업(Gardner, 2010, 119)"을 지칭하는 사르트르(J. P. Sartre)의 무화(néantisation) 개념(Sartre, 1943, 57-59)을 변증법적 인과 개념으로 변용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스카는 부재화로서 인과성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선형적인 헤겔적 자동발생학과는 달리 (우연적인 것들의 공동결정의 결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결과는... **다원적으로** 결정된다. 스피노자의 등식 [규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다]을 예로 들 때, 이는 더 흥미로워진다. 따라서 정의적으로(definitionally) 사물들은 그것들이 배제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거나 ... 조금 더 낫게 말하자면, 그들의 차이에 의해서 규정된다. 또는 이보다 더 낫게 말하자면, **변화하는 차분화(changing differentiations) 체계 및 차분화하는 변화(differentiating changes) 안에서 그들의 위치**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규정**을 적합하게 이해한다면, 모든 규정은 부정이며, 이는 **인과성의 부정성**을 확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과적인 것은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부재화 시키는 것이며, 이는 다시 전화시키는 것이며, 재규정하는 것**이다(To cause is to change is to absent is to transform and so redetermine). 인과성(causation)은 부재화(absenting)이다(Bhaskar, 1993, 240).

이 부재화의 변증법은 앞서 논의한 네 변증법의 핵심 구조인 변화의 구조를 내포한다.

> 부재화(absenting) → 타자성(alterity) → 탈총체화(detotalization) → 탈행위자화(de-agentification) 또는 이탈(disembodiment)(Bhaskar, 1993, 244)

앞서 우리는 바스카가 자연 영역에도 변증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하지만 변증법이 자연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재화로서 인과성'은 여전히 '인간 이외의 행위자들이 창출하는 제약의 제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테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부정성을 사물이나 상태의 인과적 변화(변화하는 차분 체계 속의 위치 변화 또는 차분화하는 변화 속에서의 위치 변화)로 대체하며 자연과 사회 영역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답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인과적 변화는 자연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에 부재화를 인과적 변화로 규정하면서 변증법의 부정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를 모두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변증법을 규정하는 데 이론적 유용성을 지닌다. 크게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또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과학 철학을 구성하려고 했던 초기 바스카의 과학적 현실주의와 조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스카에 따르면, 부재화로서 인과성은 헤겔 변증법의 핵심인 '부정의 부정'을 비목적론적인 방식으로 전화하는 데도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바스카는 부정의 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정적인 것은 실정적인 것에 대해 선차성을 나타낸다. (a)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이는 부정의 부정, 즉 지구-역사적 산물(geo-historical products)에 대한 지구-정치적 전화(geo-political transformation)로 나타난다. 그리고 (b) 실정적인 것이 '형성적 과정'과 '과거와 외부로 가장하고 부재하는 것의 현존'으로서 부정적인 것에 의해 발본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명백한 이중성은 부정적으로 충전된 비대칭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실정적인 것 안의 부정적인 것 속에는... 더욱 부정적인 잔여나 흔적 구조가 남는다. 이는 현존 안의 부재로 결코 그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 헤겔은 변증법의 본질은 부정적인 것 안에 있는 실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며, 실제로 그의 화해의 변증법에서 그러하다. 우리가 볼 때, 변증법은 실정적인 것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현존하는 것 안의 부정적인 것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다(Bhaskar, 1993, 241).

위에서 드러나듯이 바스카는 부정적인 것이 실정적인 것에 대해 선차성이 발휘되는 과정, (지구-역사적) 산물에 대한 (지구-정치적) 전화를 '부정의 부정'의 관점으로 정의한다(Bhaskar, 1993, 377). 그에 의하면 지구-역사적 산물에 대한 지구-정치적 전화는 '부재의 부재화'를 지시하고 이는 그 자체로 비선형적인 변증법으로 헤겔주의적 보존적 지양(preservative dialectical sublation)에 대한 변증법적 논평이 된다(Bhaskar, 1993, 152). 부정의 부정이 실천적 전화와 인과적 부재화로 재규정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바스카가 헤겔을 비판하고, 자신의 '부재/무로서 현실의 확정적인 부정(real deteminate being)' 개념이 헤겔의 부정성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Bhaskar, 1993, 8), '부정의 부정' 테제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제기하는 부정성의 우위가 '부정의 부정'의 전통적 변증법과 일치한다고 말한다(Bhaskar, 1993, 377). 이러한 개념화는 일원론적이지 않고 목적론적이지 않은 변증법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알튀세르가 시도한 과잉결정의 변증법이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지만 그가 '부정의 부정'에 대해 취하는 이론적 입장은 알튀세르의 입장과 미묘하게 구분된다. 알튀세르가 부정의 부정을 논리적이고 목적론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폐기하고자 하였다면 바스카는 헤겔이 제시하는 '부정의 부정'이 어느 정도 목적론적 특성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목적론적인 개념은 아니며 비목적론적인 인과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정의 부정에서 두 번째 부정이 첫 번째 부정에 지양의 구조로 내포된 논리적 부정이나 자동발생(auto-genesis/auto-geneticity)의 부정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정의 보편적 항상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용될 수 있다면, 부정의 부정이 반드시 목적론적인 개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해, 바스카가 이를 논리적 지양과 분리시키고 인과적 부재화(논리적 변증법에 반한 인과적 변증법)와 실천적 전화의 가능성으로 재해석하는 한 알튀세르의 과잉결정의 변증법과 바스카의 부재화의 변증법 사이에 이 두 개념의 만남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과적 차분화로서 부재화는 알튀세르

가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말한 '과정' 개념과 전체/부분, 구조/정세의 동시 결정과도 공명한다. 만일 (알튀세르가 가정하듯이) 구조가 정세의 연속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 부정을 다른 부정으로 이끄는 부정의 **클라이맥스**(절대적 통과점이나 계기)는 없으며 구조의 클리나멘(clinamen)이나 편의가 바로 부정("to cause is to change is to absent", (Bhaskar, 1993, 240))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기본적인 생산관계의 관점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재생산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재생산을 위해 그 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형시켜 왔다.[20] 현재의 금융자본주의는 과거의 산업 자본주의와 같지 않고, 현재의 복지국가는 과거에는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적인 요소라고 분류되었던 요소들을 그 내부에 지니고 있다. 이는 재생산과 이행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어떤 것의 부정은 반드시 그 반대물로의 직접적인 전환(예정된 지양의 운동)이거나 대립물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변화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바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항상 자본주의에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21]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지젝은 파시즘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외적 대립물이 아니라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신의 내적 적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파시즘을 자본주의의 내적 부정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Žižek, 1991, 3).) 부재화로서 인과성은 바로 이러한 특성, 즉 동일성/차이의 동시성과 정세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분기의 가능성을 인과성의 틀 안에서 포착하는 데에 이론적 강점을 지닌다. 또한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이 아니라 내부에서 열리는 새로운 지평[22]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20) 해외생산, 국제분업 등의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틀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동시에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강화되어 왔다.

21) 구조의 재생산도 구조를 부정하는 요소나 경향과의 대립하면서 이루어지므로 재생산도 일정하게 구조의 외부를 포함하고 내부화한다고 할 수 있다.

22)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이에 반하는 요소들이 도입되고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공존할 때,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자본주의는 과거의 자본주의와 같지 않고 그 변화는 자본주의를 경향적으로 수정하고 부정하는 요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내부와

스피노자의 내재적 인과성에 의지해 구조 인과성을 가공하고자 했던 알튀세르의 이론적 시도와도 조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변증법을 그것이 장점을 지니는 만큼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에 이론적 균열을 가하게 된다. 바스카의 시도는 내부적 질적 전환과 인과적 분기의 관점에서 부정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을 구성하는데 이론적 유효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시도는 변증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순과 적대 개념을 상대화하면서 변증법의 이론적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이론적 위험성을 지닌다. 부정성이 인과적 변화를 지칭하는 데 그칠 뿐이라면 우리가 굳이 변증법에 의존해 사회나 자연 현상을 분석할 이유는 무엇일까? 인과적 부재화로서 부정성이 갖는 이론적 강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스카의 부재화 개념을 도입해 자신의 새로운 가치론의 함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아서(C. Arthur)의 논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VII. 부재화인가, 부정성인가?

신변증법(New dialectic) 이론가로 잘 알려진 아서는 바스카와 유사한 관점에서 변증법의 비목적론적인 개조를 시도하는 이론가이다. 무엇보다 부정의 부정을 목적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두 이론가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두 이론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스카가 헤겔의 변증법이 일원론적이고 목적론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아서는 헤겔의 변증법은 그 자체로 목적론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바스카의 입장이 알튀세르에 가깝다면, 아서의 입장은 헤겔의 변증법에

외부가 구분되지 않는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부정이 파시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이 둘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해 변증법적 것이든 인과적인 것이든 부정의 결과가 내부인지 외부인지의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 비목적론을 검출하는 지젝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서는 큰 틀에서는 바스카가 재구성하는 변증법의 개조 작업의 이론적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의 개념틀을 자신의 시도에 적용한다. 특히 아서는 자신의 저서 『신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바스카의 부재화 개념을 활용해 자신의 신변증법 테제를 정교화하면서 바스카 개념의 이론적 유효성을 예증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가치형태론은 『자본』에 내재하는 가치이론의 핵심이며, 그 핵심인 추상노동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인 부재화 개념이 요구된다. 요컨대 '가치화 과정'의 이면에 부재화가 작동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그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질적인 상품들이 서로 비교되고 교환되는 시장은 상품의 물질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상품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화시킨다. 즉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 형성되는 가치는 근본적으로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한) 부재화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아서는 생산-교환-소비 과정에서 부재로서 가치와 현존으로서 가치가 부정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한다(Arthur, 2002, 160).

	생산	→ 교환	→ 소비
A. 부재(absence)로서 가치	실제 존재(real being)	무(nothing)	실제 존재(real being)
B. 현존(Presence)으로서 가치	비-존재(non-being)	존재(being)	`비-존재(non-being)

A는 교환과정에서의 실제 존재(사용가치)의 부재화를 통해 변증법이 발생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B는 A에 대한 유사 전도로서 A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교환과정을 매개로 가치가 드러나는 과정(실제 상품들의 치환을 통한 가

치의 현존)을 묘사한다. 이제 A와 B의 대립 관계 속에서 '부정의 부정'이 작동하는데, 상품의 물질적 특징이 부정되는 첫 번째 부정이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부정은 교환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다. 교환은 사용가치로서 상품의 '실제적 존재(real being)'의 부재(absen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부재의 부재화'는 출발점으로 돌아가 상품이 사용가치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무**가 그 반대물인 **(추상적) 존재**가 되도록 야기한다(가치의 추상적 존재는 화폐로 표현된다). 즉 가치의 현존이란 시장에 의한 부정과 시장 영역 안에서의 부정을 통해 구성된다(Arthur 2002, 161). 사용가치의 부정과 교환가치의 생성을 자본주의 생산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부재화의 인과성**으로 설명하는 이 같은 아서의 논증은 가치형태가 시장관계의 인과성 속에서 사용가치의 부정을 통해 형성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메커니즘에 대한 유력한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만큼 바스카의 존재론적 무 개념과 부재화 개념의 이론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서의 논증이 바스카의 부재화 정식이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의 고유한 이론적 가치를 상대화하며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의 지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신변증법』에서 아서의 주된 공격 대상은 선형 논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는 논리역사주의(logical-historical method)이다(Arthur, 2002, 18-24). 논리 역사주의의 대표자인 엥겔스는 단순상품생산에서 시작해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설명하는 『자본』의 설명 구조가 자본주의 발전의 실제적 역사를 반영하고, 이것이 마르크스의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서는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와 실제 역사(전개)의 동형성을 가정하는 이 같은 설명은 변증법의 실제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본』의 변증법은 순행(progression)이 아니라 역행(retrogression)의 방법, 즉 비선형적 역행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서는 또한 엥겔스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게 되면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인 설명을 생산하게 될 뿐이며 이 방법은

역사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도 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시장을 축으로 자본주의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논의를 목적론적인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자본 축적의 동역학을 적합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서는 논리역사주의에 반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M-C-M′)이 단순상품유통(C-M-C′)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단순상품생산 체계를 일반화·보편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의 추상화의 계기로서 시장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가치화가 자본을 매개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 가치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자본 아래 포섭할 때(Arthus, 2002, 54), 노동이 자본과 교환될 때에만 가능하다("노동은 자본 그 자체의 사용가치(Marx, 1993, 297)"이며 오로지 "자신의 대립물을 생산할 때에만 생산적으로 된다(Marx, 1993, 305).")). 다시 말해, 노동의 추상화를 추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 자본("자본은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 그 자신의 부정[노동]을 부정해야 한다.")인 것이다.[23] 따라서 자본주의적 가치화 과정에 이면에는 자본-노동의 모순이 작동한다. 당연히 부정의 변증론자인 아서는 이 과정을 부정(negation)의 관계로 묘사한다.

> 가치의 실정성의 이면에는 부정의 과정이 자리한다. 자본 축적은 가치과정에 저항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서 자신을 실현한다. 이 새로운 가치화 개념은 노동가치 이론을 부정성의 변증법으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Arthur, 2002, 54).

가치형태론을 이해하기 위해 바스카의 부재화를 사용하는 아서의 새로운 가치론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지만[24]) 자신과 유사한 입장에서 변증법을 가

23) 아서는 "자본은, 노동의 구체적 종별성과 상관없이 노동을 착취하는데 동일한 이해를 갖기 때문에, 모든 노동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지적한다(Arthur, 2002, 42).

24) 아서가 인용한 추상노동 이론가인 루빈(I. I. Rubin)을 따라 가치론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부

공하는 바스카의 부정성 개념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아서의 논의는 역설적으로 바스카의 부재화 개념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아서는 부재화의 논의를 가치형태론에 적용하지만,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관계나 모순을 설명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자본-노동 관계를 매개로 한 가치의 추상화에는 (모순이나 적대를 바탕으로 한) 부정성 개념이 적용된다. 그런데 만일 아서가 말한 대로 노동에 의한 자본의 포섭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면 이는 부재화(시장에서의 인과적 부재화)가 자본주의의 내재적 동학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나아가 인과적 부재화 개념보다는 길항적 모순이나 적대성을 바탕으로 한 부정성 개념이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설명하는 데, 이론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이는 부재화 개념이 그 자체로 오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서의 틀 안에서 부재화 개념은 자연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아우르며 부정의 부정을 논리적 '자기발생'이 아니라 (시장의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인과성의 관점으로 전화하는 이론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경덕·위진철(2023, 322-334)이 설명하듯이, 아서의 논증은 또한 계급 적대 또는 계급 모순의 부정성이 시장에서 가치의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는 점을 보이고 있다. 노동 또는 가치의 추상화라는 부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본이며, 자본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지출하는 "노동의 행위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Arthur, 2002, 330)이 생성된다는 것이다(강경덕·위진철, 2023, 230). 따라서 아서의 입장은 부재화 입장에서 변증법을 일반화하는 이론적 시도의 유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25]

재화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5) 아서는 단순상품생산 사회를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반해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이 오히려 단순상품생산 사회를 완성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착취 가능한 노동 시간'이 핵심적 쟁점으로 대두된다. 하지만 아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부재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정컨대 이는 아마도 아서가 이러한 논의가 부정의 부정을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 즉 목적론인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적어도 **인과적 부재화로서 부정성이 모순의 부정성과 접합되어야 할 이론적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바스카의 현실적 과학주의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콜리어도 바스카의 변증법에서 드러나는 모순의 모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차이가 모순이라면 차이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변증법자일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발견의 힘이 사라진다... 모순이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체계 안에 발생시키는 내적 적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순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모순 개념은 헛되게 놀고 있는 것이다(Collier, 2002, 159).

콜리어가 지적하듯이 인과성을 부정성과 등치시키고 이를 변증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변증법을 (구조의 미분화를 함의하는) 차이의 논리에 가깝게 만든다(Collier, 2002, 159). 하지만 변증법은 인과의 논리일뿐만 아니라 인과적 총체성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다시 그 총체성 안에 포섭되면서 그것을 변화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모순의 부정적 인과성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화를 사고하는 것이 변증법의 이론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바스카가 모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순과 부정성을 분리하고 변증법적 부정성을 (인과적) 부재화의 관점에서 재규정할 때, 그의 시도는 모순(특히 길항적·적대적 관계의 모순)의 역할을 약화시키면서 이와 같은 변증법의 본래의 이론적 가치를 사소하게 만든다. 인과적 변화의 이론은 변증법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재화로서 인과성 개념만으로는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잉여가치 생산의 동학과 그에 내재하는 모순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 적대관계를 적합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서는 가치론을 부재화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언급한 '수탈자에 대한 수탈' 개념을 부정의 부정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대립을 접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상대화한다는 점에서) 부재화로서 변증법은 기존의 변증법이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가지고 있던 이론적 장점을 중화시킨다. 따라서 인과성으로서 부재화가 비목적론적인 방식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부정성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의 분석적·실질적 유효성은 변증법의 고유한 특징과 함께 약화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모순의 복수성을 바탕으로 비목적론적인 변증법(다수의 모순 중 하나로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 의해 매개되는 부재화의 인과성)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는 물론 바스카의 발생기제 개념에 내포된 변증법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즉 다양하게 층화된 현실에 내재하는 다수의 모순들이라는 관점에서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을 가공할 가능성이 바스카의 이론 내에 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재화로서 인과성의 이론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틀 안에서 부정성과 긍정성을 수용하면서 이 이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다른 글(강경덕, 2023)에서 다룬 바 있어 이곳에서는 결론에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바스카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부정 개념의 존재론적 절대화의 한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VIII. 부정의 존재론

바스카가 부재화의 관점에서 변증법을 재구성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부정의 일반론을 제시한다. 바스카에 의하면, 비존재(non-being)는 존재의 가능성의 조건이며, 부정이 없다면 긍정도 없다. 따라서 실정성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정성의 바다에 떠도는 물결에 불과할 뿐이다(Bhaskar, 1993, 3). (부재화의 논의를 감안할 때) 존재론의 차원에서 부정성을 일반화하는 바스카의 논의가 아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재화를 넘어 무의 존재론적인 선차성(Bhaskar, 1993, 39)을 주장하는 바스카의 논

의를 존재론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그의 논의는 고창택(2008, 11)이 지적하듯이 무의 선차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기 보다는 단언하는 것에 가깝다.

바스카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부재, 공백이 없는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고 발생할 수 없는 세계일 것"(Bhaskar, 1993, 46)이라고 말한다. 또한 완전히 실정적인 물질적 대상의 세계(공백 없이 꽉 찬 세계)가 불가능하다면 그 반대, 즉 총체적인 공백, 완전한 무를 배제할 그 어떤 선험적 이유도 없다(Bhaskar 1993, 46)고 주장한다. 이는 확정적 비존재나 부정성의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지만 공백이나 무가 없는 물질적 세계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재가 존재론적으로 현존에 앞선다는 것을 함의한다.[26] 하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기대어 서 있는 이론적 토대가 과학적 현실주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큰 설득력이나 이론적 유효성·유용성을 지니지 못한다. 현대 물리학은 진공을 단순한 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진공상태 또는 양자 진공 개념에 따르면, 진공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전자기 파동과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진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소비되고 힉스 장(Higgs field)이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Susskind, 2005, 155-156).[27] 이는 바스카에 대한 확정적인 비판이 될 수는 없지만, 바스카가 무의 선차성을 논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거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한 설명일 수 있다는 것(때로는 무가 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부재의 존재론적 선차성의

26) 바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전히 실정적인/실증적인 물질적 대상의 세계가 불가능하다면, 부재가 없는 꽉 찬 세계가 불가능하다면, 그 반대를 배제할 그 어떤 선험적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해, 완벽한 부재,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배제할 선험적인 이유는 없다. 부정성은 실정성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반대는 옳지 않다‥ 비존재는 존재 가능성의 조건이다. 그 어떤 비존재도 존재 가능성의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적으로 비존재인 것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다. 기원을 만드는 절대가 존재한다면, 그 어느 것도 그것의 존재나 형태가 될 수 없을 것이다(Bhaskar, 1993, 46).

27) 진공의 에너지 밀도는 암흑 에너지(Panek, 2011)와 우주 상수(Chaisson, 2001, 86-88)에 의해 설명되기도 한다.

이론적 설득력은 약화된다.

지젝은 무나 공백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비용(에너지)이 든다는 힉스 장 이론의 핵심 주장을 근거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며 바스카와는 반대의 주장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지젝에 따르면 '무 보다 적음(less than nothing)'과 '무'라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무가 존재하며, 두 번째 무는 첫 번째의 '무 보다 적은 무엇'이 부정될 때 존재한다(Žižek, 2012, 944-945). 존재와 무 사이의 관계를 '부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바스카와 지젝의 입장은 유사하지만, 이 두 이론가가 물리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부재를 도출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부정 개념이 더 적합한지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적 논리로 과학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거나 과학적 발견이 함의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일반화하려는 것은 자못 '과학적 이데올로기(Canguilhem, 1988, 57-58)'[28]를 작동시키며 과도한 일반화나 임의적 일반화('과학의 주제넘은 과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알튀세르(Althusser, 1990, 244)의 경고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굳이 과학적 사실에 기대지 않더라도 바스카의 논리 속에서 부재 및 무의 선차성과 관련해 설명되지 않는 또 하나의 논점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스카는 무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며 비존재가 존재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부재나 무가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면 왜 부재와 무에 대한 부재화가 나타나야 하는가? 부재가 현존의 조건이라면 왜 부재를 제거하려고 하는가? 캘리니코스가 지적하듯이 그의 이론에는 무의 선차성이 단언될 뿐 이 질문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나 논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Callinicos, 2009, 577). 따라서 부재와 무의 존재론적 선차성은 부재화 개념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보다는 그 이론적 가치를 약화시킨다. 이는 특히 부재화 개념의 이론적 강점을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에 결정적 타격

28) 캉기엠은 실용적인 압력 속에서 과학은 실제로 연구에 의해 증명된 것 이상의 것을 진술하기도 하며, 과학의 발전이 모든 이데올로기와 단절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이데올로기의 공존한다고 말한다.

을 가한다. 고구마를 굽는 행위는 날고구마를 부재하게 하지만, 군고구마를 현존하게 하는 것이다. 고창택(2008, 11)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부재화를 현존에 대한 부정의 절대적 우위, 또는 존재론적 전제로서 부정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을 절대적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관계 속에서 부정성(모순)과 실정성을 다룰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부정이나 긍정을 출발점으로 부정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접합의 양상으로서 긍정과 부정을 부재화로서 인과성 개념과 접합할 수 있는 경로가 바스카의 이론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X. 결론: 관계의 인과성으로 부재화

지금까지 우리는 바스카의 변증법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층화의 변증법, 변화의 변증법, 총체성의 변증법, 실천의 변증법으로 구현되는 바스카의 변증법 개조 작업은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증법을 자동발생적 논리 구조에서 분리시키고 다원적이고 비목적론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논의는 마치 알튀세르가 제시한 구조와 정세의 과잉결정에 대한 상세한 주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알튀세르가 과잉결정과 최종심급에서의 경제 결정 사이에서 이론적으로 동요했다면, 바스카의 논의는 발생기제들의 복합적 구성들을 바탕으로 변증법의 다원성을 강화하면서 과잉결정의 인과성의 이론적 함의를 강화한다. (이러한 입장은 과잉결정을 보편적 제약들(생산양식과 주체화 양식)의 이접적 종합(disjunctive synthesis)로 파악하려는 발리바르의 입장과도 조응한다 (Balibar 1991, 158). 크게 보면 이들은 과학적 현실주의를 공유한다.)

하지만 바스카가 비목적론적인 변증법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무의 존재론적 선차성 개념은 그 자신을 과학적 현실주의와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과장된 무의 존재론은 그의 논의를 그가 거부하는 형이상학에 가깝게 이끌고 간다. 또한 독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바스카의 용어법과 복잡한 논증이 그만큼의 명료함과 설득력을 생산하지 못할 때도 많다. 하지만 부재화 개념은 모호한 만큼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재화 개념의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부재화로서 부정 개념이 모순과 부정성의 분리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모순 개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재화가 반드시 바스카가 가공하는 무의 존재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바스카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부재화 개념을 '무의 존재론'과 분리하는 동시에 모순 개념과 재접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순이 있으면 변화가 발생하지만 모든 변화의 원인이 모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적 부재화의 이론으로서 변증법과 모순을 분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마슈레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모순을 모든 실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독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모순과 구조, 인과성의 관계를 사고할 가능성을 지닌다(마슈레, 1979, 296-297). 특히 관계의 인과성의 관점에서 부정성과 실정성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컨대 입장을 바꾸어 부정성이나 실정성 중 어느 하나를 (절대적)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관계를 축으로 부정성과 실정성에 접근한다면 이 중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관계 속에서 모순을 사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관계들)은 바스카의 부재화가 가정하는 인과적 과정 속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움직이지만 이 요소들이 관계 이전에 부정적이거나 실정적인 관계를 전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관계들이 형성하는 인과적 작용 속에서 부정적 관계나 실정적 관계가 생성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인과적 부재화는 '무의 존재론'과 분리되어 부정성과 실정성을 포함하는 관계들의 인과성을 대표하는 개념(양가적인 인과성의 변증법)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공존이라는 측면을 내포한 관계의 인과성(causality(causal determinations) by relations)이

라는 관점에서 인과성으로서 부재화를 이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강경덕, 2023, 94-100). 이러한 입장은 어떤 내정된 방향성(헤겔의 목적론)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이미 주어진 결과(전체)의 입장에서 그 전체가 형성된 과정을 회고적으로 파악하지 않기에 현재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주체들의 실천적 유효성과 그로 인한 경로의 변화 가능성도 내포한다.[29] 요컨대 이미 주어진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은 항상 어긋나 있다(The time is [always] out of joint)".

그리고 아마도 이때 모순은 부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장되고 증식될 것이다.[30] 다시 말해, 사회적 계급이나 사회적 적대의 고정된 분리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오히려 다양한 모순들이 가시화되고 분석과 투쟁의 틀 안에 기입될 것이다. 바스카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발생기제들 내부에 (길항적·적대적 관계의) 모순이 있을 수 있고, 한 발생기제와 다른 발생기제가 모순적(제약이나 대립)[31]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 안의 관계'의 관점(또는 관계의 존재론(ontology of relations)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순의 변증법은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그것과 조응한다. 계급투쟁이 한 계급의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과거와 같은 이분법적 계급 구조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대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프롤레타리아화'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현대의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프롤레타리아의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다. 예를 들어, 잉여가치의 생산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되며 국제적 분업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

29) 주체 개념뿐만 아니라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도 현재적 대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소를 전제하지 않은 현재적 관점의 모순이라는 쟁점이 형성된다.

30) 정치적 주체화가 근본적으로 집합적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이러한 논점은, 즉 인과적 부재화와 다원적 모순의 접합은 **미시적 집합화** 또는 **집합적 미시화**라는 개념이 거대 주체(거시적 주체화)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주체화 개념이 될 수 있는지 쟁점을 제기한다.

31) 상호 제약이나 구조적 제약의 관계는 반드시 대립의 관계나 적대의 관계는 아니지만 적대적이거나 길항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적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는 동시에 컴퓨터 산업 및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된다. 이는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나 이들의 경제적 지배를 받는 국가들 모두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인도의 IT 센터나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노동자들이 매일 밤 10시 넘게 일하거나 밤을 새는 일이 빈번한 분당이나 판교의 첨단 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권력 관계와 사회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계선이 등장하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공존과 갈등의 관계가 형성된다. 페미니즘이 계급과는 다른 차원의 모순을 드러내고, 민족의 유령은 여전히 국경(영토적 국경 및 사회-정치-경제적 국경)을 변화시키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환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형성하는 관계들 속에서 존재를 보존하고자 발전시키고자 하는 실정적 존재들(스피노자적 코나투스의 존재들)은 스스로와 관계 자체에 대한 인과적 부재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순을 생산하고 치환하고 파생시킨다. 마르크스가 가끔은 자기 발생적이고 논리적인 모순 개념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나 『자본』의 생산양식 분석에서 나타나는 변증법 개념은 바로 이러한 양가적인 인과성의 변증법이 아닐까? 이는 결국 현실을 적합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스카의 부재화(부재화로서 인과성)가 부정의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를 매개로 모순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함의할 것이다.[32]

『변증법』에 드러난 바스카의 이론적 야심은 분명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부정의 존재론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가 이전에 취했던 『현실주의적 과학이론』(Bhaskar,

32) 그리고 아마도 관계라는 개념은 제약/문제의 제거라는 문제틀을 인간의 실천을 넘어선 형태를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집합적 실천이 여전히 구조적 경향이 실현되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실천의 양식이겠지만 다른 비인간적 존재들의 행위도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대해 반응하면서 일정한 편의를 생산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때 '산티아고에서 나비의 날갯짓'은 아마도 카오스 이론의 초기 조건의 민감성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적 편의를 함의하는 철학적 은유가 될 것이다.

2008)이나 『자연주의의 가능성』(Bhaskar, 2000)[33]과 같은 입장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그는 오히려 이러한 입장을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무'의 선차성 없는 부재화를 모순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을까. 사실 바스카는 『변증법』에서 이전과 다른 길을 간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길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 『변증법』에서 그가 남긴 생산물들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의 인과성으로서 부재화 개념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곤란함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변증법, 부재화, 과잉결정, 과학적 현실주의(실재론), 알튀세르/바스카

33) 이 두 책의 최초 출판 연도는 각각 1976년과 1979년이다.

[참고문헌]

강경덕 (2014). 구조와 모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논점들. 서울: 서광사.
_____. (2020). 마르크스주의적 '구조'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랑시에르 대 바스카. 인문학연구, 120, 121-162.
_____. (2023). 구조인과성의 변증법의 가능성과 한계: 스피노자와 헤겔 사이에서. 인문사회과학연구 24(1), 67-106.
강경덕·위진철 (2023). 아서의 변증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변증법의 가능성과 한계. 서강인문논총, 66, 301-340.
고창택 (2008). 메타비판적 변증법에서 비판실재적론적 변증법으로: 바스카의 헤겔·마르크스 변증법의 변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108, 1-33.
서민규 (2010). 비판적 실재론의 변증법적 이행. 철학탐구, 27, 57-81.
이기홍 (1995).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철학, 43, 444-471.
Althusser, L. (1970). For Marx. New York: Vintage Books.
_____. (1972). Marx's Relation to Hegel. 김석민 옮김 (1992). 마키아벨리의 고독. 서울: 백의, 177-206.
_____. (1976). Essays in Self-Criticism. London: New Left Books.
_____. (1990). Philosophy and the Spontaneous Philosophy of the Scientists & Other Essays. London: Verso.
_____. (1996). Pour Marx. Paris: Découverte.
Althusser, L. and Balibar, É. (1997). Reading Capital. London: Verso.
Arthur, C. (2002). The New Dialectic and Marx's Capital. Heiden: Brill.
_____. (2020). The Spectre of Capital. Leiden and Boston: Brill.
Badiou, A. (1997). Saint Paul – La fondation de l'universalisme. 홍미옥 옮김 (2008). 사도 바울. 서울: 새물결.
_____. (1998). Abrégé de métapolitique. Paris: Seuil.
_____. (2005). Being and Event. London: Continuum.
_____. (2009). Theory of the Subject. London: Continuum.
Balibar, É. (1991).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_____. (1994). Masses, Classes, Idea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_____. (1996). 'Structural Causality, Overdetermination, and Antagonism', Postmodern Materialism and the Future of Marxist Theory. Wesleyan University Press, 109-19.

_____. (2002). Politics and the Other Scene. London: Verso.
Balibar, É. and Macherey, P. (1974). Preface to Les français fictifs: le rapport des styles littéraires au français national. 이성훈 편역 (1995). 유물론·반영론·리얼리즘. 서울: 백의, 151-200.
Bhaskar, R. (1993). Dialectic: The Pulse of Freedom. London: Verso.
_____. (1998). Critical Realism and Dialectic.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2000).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New York: Routledge.
_____.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ondon: Verso.
Callinicos, A. (1982). Is There a Future for Marxism. London: Macmillan Press.
_____. (2006). The Resources of Critique. Cambridge: Polity.
_____. (2009). Critical Realism and Beyond: Roy Bhaskar's Dialectic. Critical Companion to Contemporary Marxism. Leiden: Brill, 567-585.
Canguilhem, G. (1988). What is scientific ideology. Ideology and rationality in the history of the life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7-40.
Chaisson, E. J. (2001). Cosmic Evoluti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Collier, A. (1988). Scientific Realism and Socialist Thought. Brighton: Harvester.
_____. (1994). Critical Realism. 이기홍·최대용 옮김 (2010). 비판적 실재론. 서울: 후마니타스.
_____. (2002). Dialectic in Marxism and critical realism, Critical Realism and Marx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155-167.
_____. (2005). On real and nominal absences. After Postmodernism.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99-310.
Creaven, S. (2007). Emergentist Marx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errdia, J. (1981). Posi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_____. (1994). Spectres of Marx.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2002). Acts of Relig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e Boer, K. (2011). Différance as Negativity: The Hegelian Remains of Derrida's Philosophy. A Companion to Hegel. Oxford: Blackwell Publishing, 594-610.
Devitt, M. (1982). Realism and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lliott, G. (1987). Althusser: The Detour of Theory. London and New York.
Engels, F. (1954). Dialectic of Nature. Moscow: Progress.

Foucault, M. (1978). "Dialogue on Power", *Chez Foucault* (ed. Wade S). Los Angeles, Circabook, 4-22.

Gardener, S. (2010). Introduction to Sartre's *Being and Time*. 강경덕 옮김 (2019). 『존재와 무』 입문. 서울: 서광사.

Glick, J. (1987). Chaos: Making a New Science. 박래선 옮김 (2013). 카오스. 서울: 동아시아.

Hegel, G. W. F. (1807). Phänomenologie des Geistes Ⅰ. 임석진 옮김 (2005). 정신현상학 Ⅰ. 서울: 한길사.

_____. (1812-1813). Wissenshaft der Logik Ⅰ. 임석진 옮김 (1983). 대논리학 Ⅰ. 서울: 지학사.

_____. (1816). Wissenshaft der Logik Ⅱ. 임석진 옮김 (1982). 대논리학 Ⅱ. 서울: 지학사.

_____. (1821).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 서정혁 옮김 (2020). 법철학.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_____. (1929). System der Philosophe, erstel Teil, Wissenshaft der Logik. 전원배 옮김 (2018). 헤겔의 논리학. 서울: 서문당.

Kang, K. D. (2018). Language and ideology: Althusser's theory of ideology. Language Sciences, Vol. 70, 68-81.

Lecour, D. (1973). Une crise et son enjeu : essai sur la position de. Lénine en philosophie. 이성훈 편역 (1995). 유물론·반영론·리얼리즘, 서울: 백의, 9-144.

Macherey, P. (1979). Hegel ou Spinoza. 진태원 옮김 (2004). 헤겔 또는 스피노자. 서울: 이제이북스.

Marx, K. (1993). Grundrisse. London: Penguin Books.

_____. (1976). Capital, Vol.1. 김수행 옮김 (1996). 자본론 1 (상) (하). 서울: 비봉출판사.

Panek, R. (2011). The 4 Percent Universe. 김혜원 옮김 (2013). 4퍼센트 우주. 서울: 시공사.

Ruell, D. (1993). Chance and Chaos. London: Penguin Books.

Sartre, J. P. (1943). L'Être et le Néant. 정소성 옮김 (2009). 존재와 무. 서울: 동서문화사.

Smolin, L. (2001). Three Roads to Quantum Gravity. 김낙우 옮김 (2007).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 서울: 사이언스 북스.

_____. (2007). The Trouble with Physics: The Rise of String Theory, the Fall of a Science, and What Comes Next. Boston and New York: A Mariner Book.

Spinoza, B. (1925).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황태현 옮김 (2010). 신학정치론. 신아출판사.

_____. (1958). Tractatus Politicus. 김호경 옮김 (2008). 정치론. 서울: 갈무리.
_____. (1977). Die Ethik. 강영계 옮김 (1990). 에티카. 서울: 서광사.
Susskind, L. (2005). The Cosmic Landscape. 김낙우 옮김 (2011). 우주의 풍경. 서울: 사이언스 북스.
Žižek S. (1991). Why should a dialectician learn to count to four?. Radical Philosophy 58, Summer, 1991, 3-9.
_____. (1997). The Plage of Fantasies. London: Verso.
_____. (2012). Less than Nothing. London and New York: Verso.

[국문초록]

로이 바스카(Roy Bhaskar)는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비판에 반해 변증법의 이론적 유효성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가공하며 변증법을 현대적인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이 작업의 핵심은 '부정(negation/negativity)'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의 핵심은 유지한 채 헤겔의 변증법에 내재하는 '목적론'을 제거하며, 변증법을 열린 총체성의 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가공한 과학적 현실주의의 핵심 개념인 발생기제(generative mechanism)의 인과성과 변증법을 접합하는 이러한 작업은 구조를 발생기제의 복합체로 파악하며, 비목적론적인 방식으로 변증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스카는 또한 구조/행위자의 이중성(daulity of structure/agency) 개념을 바탕으로 구조주의에 내재하는 구조적 편향성을 수정하고 과학적 인과성의 틀 안에서 실천적 전화를 사고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변증법의 목적론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부재화로서 인과성(causation as absenting) 개념은 모순의 이론으로서 변증법의 이론적 지위를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그가 전제하는 무의 존재론적 선차성은 변증법을 과장된 부정의 존재론으로 변모시킬 위험성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스카가 시도하는 변증법 개조 작업의 이론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며 (바스카의 논의를 축으로) 변증법을 비목적론적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조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바스카와 유사한 이론적 시도를 수행하는 알튀세르와 아서의 논의도 살펴보며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론적 쟁점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부정의 부정'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lse of Freedom?
- a Critical Investigation on Bhaskar's Pluralist Dialectic

Kang, Kyong Deoc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paper, I aim to explore the theoretical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Roy Bhaskar's endeavor to reconstruct the dialectic in a non-teleological form.

Bhaskar's approach involves transforming the dialectic into a theory of open totality while retaining its essence as a theory of negativity. To achieve this, he distinguishes the theory of the dialectic from that of contradictions and redefines 'negation' as 'absenting absence'. Bhaskar's concept of 'causation as absenting' is instrumental in reshaping the dialectic into a non-teleological framework. However, this perspective tends to relativize and trivialize the dialectic's theoretical significance as the theory of contradiction. Moreover, his prioritization of non-being over being ultimately leads to an exaggerated emphasis on non-being without offering a viable theoretical tool for analyzing socio-historical phenomena.

On the other hand, Bhaskar's formulations of the duality of structure/agency and generative mechanisms provide valuable instruments for incorporating the efficacy of praxis into the notion of structure. This allows for the modification of an inherent structural deviation, all the while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and political practices within the framework of scientific causality.

To conclude, this paper will critically examine the theoretical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Bhaskar's attempt to construct a non-teleological dialectic. It will also investigate the necessary theoretical conditions for developing a dialectic that is free from teleology, building upon Bhaskar's dialectical framework.

【Keywords】 dialectic, absenting absence, overdetermination, scientific realism, Althusser/Bhaskar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9일 /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7일

【저자연락처】 doc8808@yahoo.co.kr